

2020 예산안을 평가한다: 확장재정과 사회정책

/ 일시 / 2019년 10월 4일 오후 2시
/ 장소 /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주최 / 좋은예산센터, 한국사회정책학회,
SSK 저발전복지국가 연구사업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초대의 글

예산이란 돈을 쓰기 전에 미리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 쓰기 전에 계획 세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미리 따져보고 점검함으로써 한정된 돈을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할 수 있고, 그래야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이 좋은 예산일까요? 어떻게 지출 계획을 짜야 잘 짰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매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면, 여러 곳에서 예산안 평가가 이뤄집니다. 국회는 예산심의 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하지만 평가보다는 해당 예산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상세 히 소개하는 데 치중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복지 등 단체가 관심 갖는 분야의 예산안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예산, 즉 재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산으로 이뤄지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예산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이므로 예산에 대한 평가에서 사업에 대한 논의를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예산'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이런 미흡함과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이번 예산안 평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예산을 감시하고 고민하는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 한국사회정책학회, SSK저발전복지국가 연구 사업단, 그리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함께 합니다.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예산안 평가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에는 전반적인 재정 운용과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평가합니다만, 앞으로는 평가 분야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절반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 과 복지 분야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도 함께 지닙니다. 이번 토론회가 정부가 일 잘하기 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예산센터, 한국사회정책학회, SSK저발전복지국가 연구사업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드림

일정표

- 14:00 - 14:10 인사말씀
- 14:10 - 15:30 **제1세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본 2020년 예산**
사회: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발표: 김태일(고려대학교)
토론: 박형수(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 15:30 - 15:40 휴식
- 15:40 - 17:30 **제2세션: 2020년 사회정책예산 평가**
사회: 양재진(연세대학교)
발표: ■ 기초보장: 김성욱(호서대학교)
■ 고 용: 윤동열(건국대학교)
■ 보 건: 권순만(서울대학교)
■ 가족/여성: 윤자영(충남대학교)